



## 근본자리에서만이 전체가 통할 수 있습니다

(죽비 소리가 난 후 4분 가량 그대로 계시다가) 왜 죽비 소리가 안 나니? (대중 웃음) 그 웃기는 일이다. 물론 죽비 소리가 안 나고, 말을 안 해도 세상은 돌아가고 있죠. 세상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말없이 걸어가는 것과 같으니까요. (대중 스님에게) 죽비 쳤나? 응? 그것 참, 내가 못 들었나?

옛날에 어떤 어른이 "쓰레기통이 돼 봐야 쓰레기의 이치를 아느냐. 금은보화 담은 창고가 되지 말고 쓰레기통이 돼라." 하셨는데, 예전 일입니다만 왜 그런 소릴 했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쓰레기통에는 별의별 게 다 담깁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이라는 건 고귀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아주 그냥 팽개쳐져 있죠. 그 쓰레기통 노릇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쓰레기통이 되지 않는다면 자신을 올바르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쓰레기 같은 것은 자기가 갖고 좋은 것은 자신을 주려고 하는 부모의 심정은 부처님의 심정과 같은 것입니다. 죽는 것마저도 그렇죠. 자세히 말을 하자면 부모의 마음은 죽는 것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돼 있죠. 사는 것도 그저 고생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부모의 소망이 작고 클 뿐이지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생자부(四生慈父)로서, 알로 낳고 태로 낳고 습한 데서 낳고 화(火)해서 낳고 하는 그 사생들이 전부, 자기 몸 아님이 없고 자기 이름 아님이 없고, 한도량에 있지 않음이 하나도 없고, 죽고 사는 것도 자기 아니 됨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고로 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들 생각하는 것과 부처님이 사생자부로서 생각하는 바가 크고 작을 뿐입니다. 우물물과 바닷물이 크기만 다를 뿐 물은 같듯이.

우리가 생활할 때 항상 주인공, 나의 불성 뿌리에 다가 모든 것을 놓으라고 하죠. 좋은 것은 감사하게 놓고, 안좋은 것은 '안짱지 않게 하는 것도 너' 라고 놓고, 그렇게 오싹통을 잘 굴리라고 했습니다. 오싹통은 누구냐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가고 오는 거, 또 내가 어디서 나온 걸 아는 거 말입니다. 또 상대성을 알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의 문채를 볼 때에 거기서 나오는 모두를 거가다 놓되, 두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게 놓고, 하나는 구경물도 거가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맑은 물로 대치할 수가 있다는 믿음으로 놓으라는 얘깁니다.



그림 · 최주현

나는 이렇게 곧바로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만 수많은 조사들이나 수많은 스님네들은 "탐진치(貪瞋癡)에 구르면 삼독(三毒)에 빠진다. 삼독에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다."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말은 그것을 넘어선 얘깁니다. 고(苦)·집(集)·멸(滅)·도(道), 이런다면은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고가 있는 것입니다. 집착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가다가 감사하게 놓고, 굴려서 놓는다 놓는다면 '멸'이 됩니다. '멸!' 일체, 일거수일투족이 다 '멸'이 됩니다. 그래서 뻘뻘 돌리지 않고 직선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실천을 하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거가에 다 놓게 되면 '멸'이 되는 이치에서 자꾸 말해 들어가면은 '도' 다 이겁니다. '멸, 도' 아닙니까? '멸' 하면 '도' 다 이거예요.

이 '멸'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활할 속에서 감사하게 놓고,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믿고 거가다 놓을 때에 바로 멸함이 생기면 도가 있고, 도심이 생기면 바로 우리가 넓게 볼 줄 알게 되고, 넓게 들을 줄 알게 되고, 넓게 말하게 되고, 지혜롭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둥글게 나온다는 얘깁니다. 둥글게 나오고, 그 둥글게 나오는 반면에 우리는 '아, 이거 돌이 아닌 까닭에 이렇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잘 굴릴 수 있게끔 될 때에 비로소 옷풀이나 바닷물이나 뽕물이나 핏물이나 흙물이나 어디에든 젖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젖는 거, 이 물저 물 따지지 않고 젖는 거, 젖는 이치 어디든 다 젖는다. 어떠한 물에도, 뽕물에도 젖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편의 말을 안 하면 그 이치를 모르겠기에 방편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젖는 이치만 안다면, 여러분이 주인공의 그 뿌리에 모든 것을 놓는다면 하나에 젖을 뿐이지 이것저것 가리는 게 없다. 가리는 게 없는 반면에 젖는 걸 알고, 젖는 걸 아는 반면에 그 젖는 거마저도 공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은 최상승의 얘깁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해 나가는 게 뭘니까. 우리가 이득이 없다면 할 것도 없지요. 할 것도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바로 이득이 충분하고 남과 나에게 다 이득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할 것이 없다'는 때까지... 우리가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화해서 찰나찰나 나뉘면서 끝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그것을 아신다면 젖는 도리마저도 공했다는 얘깁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천차만별의 굴림이 있겠지만 단 한 군데서만이 굴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단 한 군데서만이 전체가 통할 수 있다는 사실! 그 한 군데서만이 상대하고 나하고 통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한 군데서만 나투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든 산 사람의 영혼이든 찰나찰나 만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살았어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거고 죽어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이 되는 것도, 어떠한 거든지 막론해 놓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불로 가고, 물로 가고, 또 흙으로 가고, 바람으로 가고, 그렇게 정리를 잘해서 다시금 이 세상에 조짐을 해서 내놓을 때 쓸모 있는 기계로 내놓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생이죠. 그런데 재생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뭐냐 하면 끝없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진화해서 형성되고, 형성되면서 또 진화해서 흠어졌다 모였다 흠어졌다 모였다 하는 과정이 끝이 없으니까요. 다함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다함 없는 그 속에서, 끝없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건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사는 걸 원하듯이, 또 죽음마저도 자기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죽어 줄 수 있다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빌 갖다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갖다 주더라도 갖다 주는 사이 없이 갖다 줘라.' 이러한 것은 과보의 빛을 갖게끔 해 드리려는 거지요. 여러분이 수없는 나날을,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남의 빛을 진 거 말입니다. 천차만별로 빛을 진 거, 죽고 죽이고 먹고 뱉고 하면서 살아온 그 과보를 말입니다. 그거를 제거해 줌으로써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 드리려는 거예요.

법정에 간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재판을 해서 보석금이라도 내야 나오게 되는 거와 같이, 될 수 있으면 부모가 자신을 보석금이라도 내서 빼낼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거죠. 바로 여러분의 주인공 자체가 스스로 해서 그 빛을 갖고, 보석금이라고 방편으로 말을 하지만 그 과보의 빛을 갖고, 바로 자신이 농사를 지은 모든 것을 스스로 추수해 들일 수 있게끔 해 드리는 역할입니다.

☞ 30면으로 계속

## 자비의 미안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뽕 출가의식 지원**  
신뽕은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뽕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피아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

# 마음의 선장을 진짜로 붙들고 믿어보세요

29면에서 계속

한 번 추수를 해 들이면 그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부모의 조상도 한 염주에 켜져 있고, 무우씨면 무우씨대로 한 염주에 켜져 있고, 수박씨는 수박씨대로 한 염주에 켜져 있고, 천차만별로 한 염주에 켜져 있으니 그 켜져 있는 차원은 천차만별의 차원이다 이겁니다. 그 차원에 따라서 크고 작게끔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여러분이 살고 계시고,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오늘에 또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만큼 그것을 어머니가 자식한테 되돌려 주듯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돈도 없는데도 주워 모아서 가져왔을 때, 내 가슴이 찡하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없다면 내 마음 편안하라고 알마를 때려 놓곤 도로 줍니다. 왜 그것을 도로 주느냐 하면 내 마음 편안하라고요. 그리고도 그 사람은 그만큼 했다는 얘기도 그 값어치를 충분히 했다는 얘기도 돈 있는 사람 몇 천만 원을 한 것보다 더, 그 사람은 이미 했다는 얘기도 여러분은 그것을 다 모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간접적으로 깨칠 수도 없고 타인이 말을 한 것 가지고 깨칠 수도 없고 또 발견할 수도 없어요. 항상 내가 말하듯이 대신 먹어 줄 수 없고, 똥 누 줄 수 없고 잠자 줄 수 없고 아파 줄 수 없고 죽어 줄 수 없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죠. 내 마음이 파도가 일 듯 하면 물이 잔잔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를 이루지 못하니까 파도가 일면 이는 대로 (가슴을 짚으시며) 거기가 놓고 태연하게 인생은 이런 것이지, 뭐 인생에 파도가 없으면 죽고 사는 것도, 생사윤회도 없을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재주가 있는 사람은 파도가 치는 대로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또 넘어 또 넘어 이리저리도 조금도 이탈이 없이 갑니다. 마음 편안하게, 파도친다고 아우성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파도치면 치는 대로 넘어 갑니다.

그러하다 보면 보이는 세상에서 파도는 차나 마음은 파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상 세계에서 타격오는 것이 잔잔해진다 이겁니다. 자기 마음에 파도가 안 일기 때문에 세상의 파도도 그만 스러져 버린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데 그 마음 하나 내버리면 다 편안해지고 산다 죽는다, 욕심이다, 벌어야겠다 이러는데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벌도 '욕심' 너무 내지 마라, 정도껏 살라, 너무 욕심내다 보면 걸려서 쓰러진다. 너무 욕심내다 보면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널 때 중간에 빠진다.' 이런 소리죠.

욕심부리지 않고 산다면, 자기 분수에 맞게 산다면 누가 뭐랄까? 돈을 번들 누가 뭐랄까? 돈을 가지고 살기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분수를 알고 살라 이 소립니다. 돈이 기쁨인데 어찌 돈 없이 살라 합니까? 하지만 돈은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또 분수를 알고 살기 때문에 정확하게 쓸 수 있고, 정확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온다 이 얘기도.

모두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러한 이치를 여러분에게 이 날까지, 직접적으로 항상 말해 오고 있습니다. 말을 해도, 한참을 잘못하게 되면 말도 잘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한테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전부 더불어 같이 말합니다. 영웅나게 내 분수도 모르면서 그냥 '내가 이력하겠다. 이렇게 한다. 너는 뭐 어쩔다.' 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진짜 업이 된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깐 필요적으로 이 공부하는 해안 하는 겁니다. 종교를 믿고 다니면서 하라, 이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왔으니깐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상대를 알니까, 세상을 알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무효지.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니까 주저는 여러분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가슴을 짚으시며) 자부처는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가끔 이 소리 하죠. 육조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스스로 불성이 여여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스스로 불성이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스스로 불성이 만법을 들고 내게 하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거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것 그랬다더라.' 하고 그냥 날려 버리고 마는데 이 도리만 알아도 날려 버릴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하죠. '뿌리 없는 싹을 봤느냐?' 싹은 자기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는 거고, 자기 뿌리를 믿고 거기가 놓고 굴림으로써 공덕이 있는 거지, 싹이 다른 싹을 쳐다보고, 형상을 쳐다보고, 이름을 쳐다보고 기도하고 그대 봤던들 이쪽 나무로 도움이 안 오고 통신도 안 됩니다. 뿌리꺼리

만이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마구니치고 같고 도깨비짓과 같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도깨비짓과 같으니라. 이름을 믿고 형상을 믿고 이러는 게 모두 네 그림자를 믿고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과 같으니라. 네가 현실 그대로 지금 걸어다니고 말하고 움직여지고 있지 않느냐' 하고 말이지요. '어떤 것이 부처님 법입니까?' 하니까, '너, 이리 오나라. 내 가르쳐 줄게.' 해서 앞에 턱 오니까 그냥 먹살을 쥐고 따귀를 얼마나 붙였는지 '어이구!' 하니까, '어이구 하는 놈이 누구냐?'고 했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니 여러분이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고맙다고 할 거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보다도 진실한 자비를 베풀어라. 베풀기 이전에 네 모습과 둘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라.' 그럴 때에 부조,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온 인연으로 인해서 모두 한테 모여 한 개체가 된 거라고요.

그런데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

신은 살 수 있는 거니까. 운전수에 따라서, 운전수도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끌고 다니는 차가 마구 쓰는 차냐, 곱게 쓰는 차냐, 세단차냐,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차가 고장이 나도 운전수가 고치죠? 차를 부딪쳐도 운전수가 패자를 시키고 새 차를 빼내죠? 바로 당신 영혼의 근본이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을 믿지 않고, 근본이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50%, 50%지.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 영혼의 근본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운전수가, 자기를 끌고 다니고.

그 주인공은, 단제가 있는데 뭐냐? 이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체의 의식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갈등도 나오고 화도 나게 하고 잘못되게도 하고 길을 잘못 들게도 하고 모든 중생들을 다스리는 선장이 있으니 그 선장한테다가 맡겨 놓으면 그 선장이 다 알아서 다스려 준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속지 마라, 속지 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내 몸뚱이 속에 천차만별의 생명체의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맺어진 인연들, 원수가 된 인연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고 내는 데도, 즉 말하자면 간장공장이나 위공장이나 방광공장이나 척수공장, 콩팥공장 같은, 각 부서에서 문지기 노릇을 하는 그런 인연들도 있거든요. 그 문지기 노릇을 하다가, 여기서 뇌물을 먹으면 이리로 가고, 거기서 뇌물을 먹으면 저리로 가고 이러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파수꾼이 외려 경계를 들여놓는단 말입니다. 경계를 들여놓는 날이면 그 회사는 시끄럽고 말이 많고 그냥 한쪽 귀머리가 부서지고 이렇게 되니까 병이 드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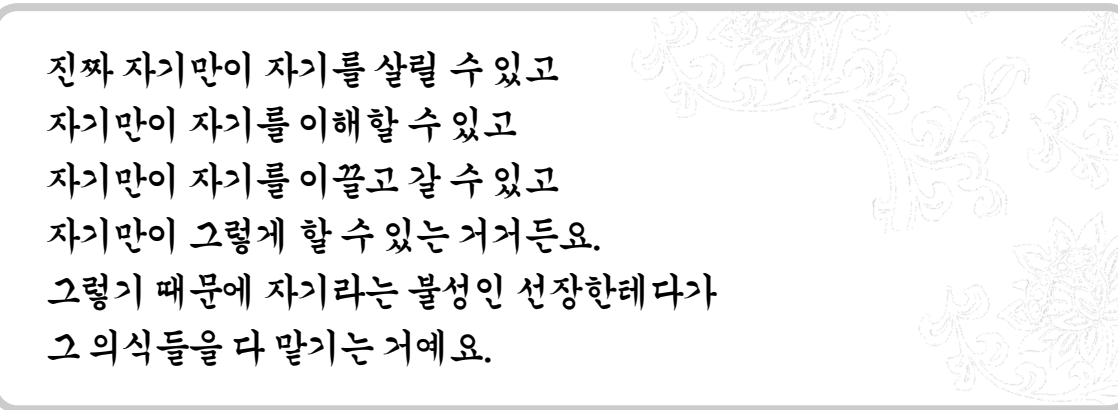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예요. 평등하게, 차별을 두지 말고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건 일제히 다 그냥 주인공이 다스리게 맡겨 놔라 이 소립니다. 이것 저것 따지고, 여기저기 부서의 파수꾼들을 다 세워도 이게 귀찮은 일입니다. 거기서 다스리는 사람 하나에다 다 맡기는 거죠. 진짜 자기만이 자기를 살릴 수 있고, 자기만이 자기를 이해할 수 있고, 자기만이 자기를 이끌고 갈 수 있고, 자기만이 고

쳐서 끌고 갈 수 있고, 자기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라는 불성인 선장한테다가 그 의식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생각들 깊이 하셔서, (가슴을 짚으시며)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하고, 생각해서 실천을 하신다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선장이라는 놈을 진짜로 붙들고져 남께서는 '너희들 모두가 사생자부가 돼라.' 하신 거거든요. '사생자부가 돼라.' 이런 것은 너희들도 미생물에서부터 거치면서 알로 낳고 태로 낳아 보기도 하고 화해서 낳아 보기도 하고 질척한 데서 모습을 가져 보기도 했고, 수없이 그런 과정을 거쳐 나왔으니 어찌 사생이 내가 아니라 할 수 있겠느냐. 네 생명, 네 마음, 네 몸, 네 공용, 네 공식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도. 그러니 진짜로 이름만 사람이 아니라 자비를 가져라, 자비! 더 붙어 자비다. 개개인의 자비가 아니라 더불어 같이 자비다. 거기에 뒤따라서 할 말은 많지만 질문 받기로 하죠. 난 여러분을 웃기지도 못하는 바보예요. (대중 웃음) 아이, 도대체 웃기지를 못 하는 사람이라고요. 허허하...

**질문자(1남):** 95년에 선원에 인연이 되어 한마음 법을 알고부터 마음이 많이 편해졌는데, 제가 올해 나이 47살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작년까지는 결혼에 대해 생각도 없었고 근심 걱정을 안 했는데 올해 들어서니까 '결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출가를 해야 할까?' 마음 속에는 항상 50%대 50%, '출가를 해야지.' 하다가 한번 실패를 해서 자신이 없으니깐 '가서 또 실패하고 나오면 어떡하냐.' 하는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고, 답답하고...

**스님:** 사람의 삶이 말이예요. 긴 여행이 아니라 짧은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죽은 영혼이나 산 영혼이나 똑같아요. 50%가 산 영혼이라면 50%가 죽은 영혼이죠. 보이지 않는 영혼.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평등해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억억을 살아있는 그 과정의 모습들을 다 알 수 있으니까요. 그대 여러분도 그것을 잘 아시게끔 몸뚱이 속에 있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 믿어 봐요. 당신 몸뚱이를 당신이라고 붙들고 늘어 지지 말고요.

(다음 호에 계속)



이 자기가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 몸뚱이가 자동차와 같다면 그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이 있어요. 야기도 얘기했지만, 그 주인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인도 모르면서 난데없이 와 가지곤 그렇게 하니 그게 낫겠어요? 그 주인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관(觀)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 주인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책을 가져가서 보고 스스로 그걸 믿고 그렇게 실천하면 스스로 낫는 거지, 뭐 그렇게 쉬운 거를 왜 모두들 믿습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래요. 지금 50%, 50%라고 그랬는데, 50%가 아니라 100%예요. 자기 뿌리가 100%, 잎새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을 다 살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싹이 웬 잔소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싹이 '간다 안 간다, 50%다 100%다.' 이렇게 아무리 난설을 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뿌리의 차원으로 당

※위 법문은 97년 4월 6일 법행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공함을 보고 공함이 좋은 아가씨 지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서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제취득신청

**상담 010-9955-9093**

♦ 담당 : 만해 스님    협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7자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 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우무

자비회에서는 공함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 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 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해 협장

LEADER

##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땀땀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임시다! 무엇을 망설일니까?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국제 선 불교 조계종

회장 : 목탁 해은    부회장 : 금당 법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승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대표전화번호 : 733-5665, 011-229-6061